Politeness의 多樣한 再檢討*

조영호**
yhcho@deu.ac.kr

<目次>

1. 들어가기
2.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이론
3. Brown and Levinson의 문제점
3.1 사회적인 규범(the social-norm)으로서의 Politeness
3.2 회화의 원칙(the conversation-maxim)으로서의 politeness
4. Politeness 이론의 재검토
5. 나가기

主題語: 공손함(politeness), 페이스(Face), FTA(Face Threatening Act), 무례한(Impolite), 페이스 행위(Face Acts), 사회적 규범(Social norm), 담화(Discourse)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politeness(정중한)」행위와 특정 언어행위, 어휘적인 요소, 통어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impoliteness(정중하지 않은)」행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검토이며, Brown and Levinson(1987)의 politeness이론을 재검토한 것이다.

이와 같은 넓은 사정(射程)을 가진 관점은 Wierzbicka(1985, 1991)가 보여준 것과 같은 언어행위와 politeness의 연구 ―특히, 다른 문화 상호간의 비교를 포함한 연구―와 같은 사회적・문화중심적인 관점을 피하고, politeness현상을 재해석하여 회화참가자(participants)간의 face행위라는 시점에서 받아들여, 경험적인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face행위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다양한 검토가 금후 인간의 담화행위 및 politeness현상을 face라는 인간 보편의 관점 중심으로 연구 분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담화상의 의미 연구에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일본어 담화의 흐름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말 표현과 더불어 존경어, 겸양어, 여성어등의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근본적인 사용 이유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여 진다. 또한 이러한 언어 표현의 사용 원인의 규명은 언어사용이 인간 내면에 끼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게 도와 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먼저 Brown and Levinson(1987)의 politeness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그 후, Brown and Levinson(1987)의 이론적인 문제점을 「사죄(apology)」표현을 들어 지적한다. 그리고 politeness현상에 관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관점과 「회화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각각의 관점에서는 politeness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담화에 있어서 politeness현상을 재검토하고, 청자와 화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face행위의 필요에 대해 소개한다.

2.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이론

Brown and Levinson(1987)의 politeness이론의 기초는 다양한 언어화자가 그 언어를 통해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 즉 Brown and Levinson(1987)은 회화는 참가자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들은 보통 회화에 있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표시해주는 것이 Brown and Levinson의 이론이다. 즉, Brown and Levinson의 생각은 기저에 있는 추상적, 사회적인 규칙이 매일의 담화에 있어서 우리들의 언어 선택을 지배하고,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다(Buck 1997).

Brown and Levinson(1987)은 「상대의 face[1]를 위협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언어행위의 이론적인 구조로 설정함과 동시에 politeness strategy를 추출할 때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face에 대해, 회화참가자(participants)의 개인적인 욕구(wants)에 따라 두 종류로 특징 지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Negative face :
자기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즉, 행위의 자유와 강제로부터의 자유 - 의 기본적이고

1) 'face'에 대한 기본적인 계념은 Goffman(1967)에 의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face는 문화적인 면에 제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face may be defined as the positive social value a person effectively claims for himself by the line others assume he has taken during a particular contact」(1967 : 15)

소극적(Negative)인 욕구이다. (1987:129)

Positive face :
발화자 쌍방이 요구하는 항상적(恒常的)인 자기 이미지, 혹은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평가되고, 받아들여져 자기의 기대가 바람직한 것이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욕구이다.(1987:101)

일반적으로 face는 어떤 행위에 의해 소실되기도 하고, 지배되기도 하고, 고양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위협받은 face는 반드시 회화참가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찰된다. 또한 face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기 쉬운 것이다. 때문에 모든 회화참가자는 만약 자신의 face를 침범 받으면 그 face를 지키려고 함과 동시에, 타인의 face를 지키도록 배려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혹은 타인의 발화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려한다는 행위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유에서이다.

Brown and Levinson은 politeness이론의 개념을 「어떤 종류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face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킬 수단이 필요하다」(1987:24)라는 思考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발화 중에 회화참가자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회화참가자 ―주로 청자에 해당한다― 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행해야만 할 때에는, 반대로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이용하여 동의(同意)를 구하거나 청자를 화자의 행위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face를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Brown and Levinson(1983)은 politeness strategy라 부르고 있다[2].

한편, Leech(1983)는 어떤 형태의 언어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정중한(polite) 것」과 「정중하지 않은(impolite)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Brown and Levinson(1987)은 그와 같은 행위를 본질적으로 청자와 화자, 혹은 양쪽의 face를 위협하는 행위(FTA)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FTA는 아래에 기술하는 것과 같이 4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FTA to the hearer's negative face.
예를 들면, ordering, advising, threatening, warning 등
(2) FTA to the hearer's positive face.
예를 들면, complaining, criticizing, disagreeing, raising taboo topic 등
(3) FTA to the negative face.
예를 들면, accepting an offer, accepting thanks, promising 등

2) Brown and Levinson(1983) 참조

(4) FTA to the speaker's positive face.
예를 들면, apologizing, accepting compliments, confessing 등 (Fraser 1990:229)

이와 같은 FTA로부터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즉, face를 위협한다고 하는 행위)는 positive politeness strategy, 혹은 negative politeness strategy를 사용해서, 위협한 face를 보상하거나 혹은 완화시킴으로써 politeness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화자로부터 위협받은 청자의 face ― 화자의 face보다도 ― 를 감소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즉, politeness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FTA를 피하고, politeness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방법(supporting rule)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Brown and Levinson은 FTA의 'weight'(무게) - 예를 들면, 청자의 face를 어디까지 위협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 와 FTA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redress'(보상행위)의 정도는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되고, 측정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2) 청자와 화자에게 관련된 상호의 힘 (relative power)
(3) 문화에 의한 부당 요구의 절대적인 지위 (absolute ranking)

(Brown and Levinson 1987:74)

또한 Brown and Levinson은 FTA를 수행하기 위한 가능한 strategy를 분류해 제안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된다(198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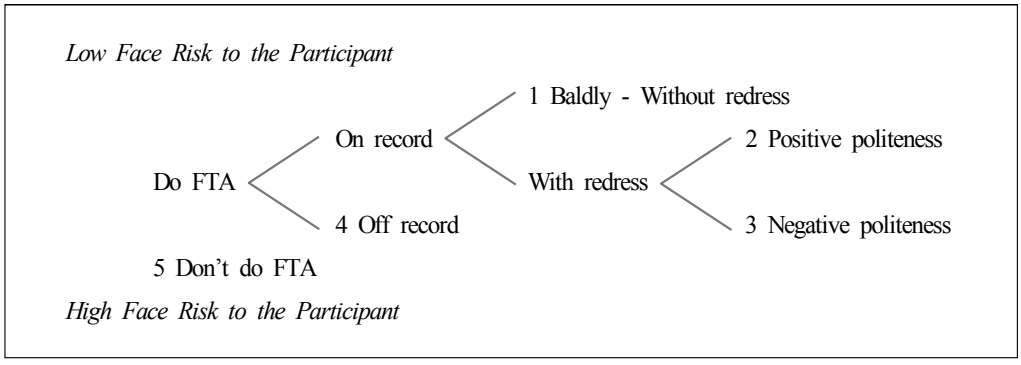

圖1 Possible strategies for doing FTAs

그림1 가운데 1~5의 번호가 붙어있는 분류는 strategy의 선택에 직접 관여하는 5단계의 politeness를 나타내고 있고, 번호가 클수록 politeness의 레벨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Brown and Levinson에 의하면 상대의 욕구에 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face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보통사람은 누구라도 이러한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strategy를 채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off record(예를 들면, 직접적이 어조를 사용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힌트를 제시함)이다. 또 하나의 방법이 on record(직접 진술한다. 부담을 준다)이다. 그 중에서는 Badly-without redressive action(그대로를 말한다)와 with redressive action(어떠한 배려에 기초를 두고 말한다)가 있다. 더욱이 with redressive action에는 positive politeness(상대의 face를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한다)나, negative politeness(상대의 face를 침범하지 않는 어조를 사용한다)의 양면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face를 배려하는 행위는 청자에게 face를 부여하고, FTA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face의 위험을 중화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이상에서 진술한 5단계에 속하는 strategy는 극히 상세하게 분류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politeness의 분석에 관여하는 중심적인 모델이 두 종류의 face에 기초를 둔 'negative politeness'와 'positive politeness'이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Negative politeness

상대의 negative face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언어행위를 행하기 위한 strategy이다. 즉, 상대방의 행동의 자유를 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발화를 행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negative politeness는 본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기본으로 하고, 화자가 청자의 negative face의 욕구를 인정, 청자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Positive politeness

상대의 positive face에 걸맞은 언어행위를 행하기 위한 strategy이다. 즉, 청자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좋은 기분이 들도록 하는 적극적인 배려를 가지고 발화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positive politeness는 화자가 청자의 욕구(wants)만 달성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청자의 face를 지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청자는 그룹의 일원, 친구로 간주되기도 하고, 혹은 그 욕구가 이해되어, 선호되고 있다고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담화행위의 성질, 화자와 청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따라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Brown and Levinson은 positive politeness에 15가지 종류의 보충 strategy(sub-strategy)를, negative politeness에 10가지 종류의

보충 strategy(sub-strategе)를 설정하고 있다[3]. 또한 그들은 positive 혹은 negative politeness strategy의 열거를 첨가해, 어떤 특정의 통어적, 어휘적, 음율적 그리고 어용론적인 특징, 혹은 strategy를 실행하는 수단, 그리고 완전한 strategy로서의 지위를 가진 politeness마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politeness strategy 가운데 다른 차원의 마커를 포함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동의 strategy(예를 들면, 겸양표현)가 언어적인 strategy(예를 들면, 명목화한다)와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Ide 1989).

Brown and Levinson은 「politeness는 모든 발화에 있어서 의미론적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만, 측정 가능한 간단한 신호로서의 방법인 '마커(maker)' 와 'mitigators'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흥미진진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1987:22). 즉, 이와 같은 관점에서 politeness를 생각해 보면, FTA와 그것을 완화시킬 수단을 의논할 경우, 화자에 미치는 face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청자의 face가 Brown and Levinson의 FTA와 politeness strategy의 양쪽의 대상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실질적으로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 이론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절에서는 Brown and Levinson의 negative, 혹은 positive politeness strategy라는 두 가지 개념이 politeness에 관한 연구에 어떻게 선택되어, 연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3. Brown and Levinson의 문제점

Brown and Levinson(1987)의 politeness이론과 그 보충적인 개념은 최근의 언어행위(speech act)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가 되며, politeness 연구의 이론으로서 도표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Brown and Levinson의 이론에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그 이론과 개념의 적용 시점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일치가 발생하며, 연구자에게 명해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Brown and Levinson의 개념이 획일적이고, 한정적인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Buck 1997).

Politeness에 관한 연구가운데, 가장 자주 연구대상이 된 것이 「사죄(apology)」라는 언어행위이다. 이 절에서는 사죄행위를 통해 선행 연구자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그것을 분석했고, 그것이 Brown and Levinson의 개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선 Brown and Levinson의 구조 가운데, 「사죄행위」는 negative politeness strategy로서 분류

3) Brown and Levinson's sub-strategies
sub-strategies of Strategy : Redressive positive politeness action (1987:102) 참조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 즉 negative politeness strategy, 혹은 positive politeness strategy라는 이분법은 다양한 이론적인 차이를 낳는다(Meier 1995).

예를 들면, Leech(1983)는 사죄행위를 positive politeness strategy로서 분류하고 있다. 또한 Holmes(1990)는 사죄에는 positive face와 negative face 양쪽의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lshtain and Blum-Kulka(1985)는 사죄strategy를 negative한 측면과 positive한 측면으로 분류하고, 그 사용은 다른 문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Brown and Levinson이 주장한 strategy 타입과는 반대로 부당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strategy와 강화의 사용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사죄연구에 대한 연구는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용법의 일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strategy의 분류 기준이 종합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분석결과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Meier 1994).

또한, Brown and Levinson의 구조의 문제점은 사죄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Snow(1990)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예를 들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Don't say that. That's not nice'(그런 말해서는 안 돼.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와 같은 예에서는 직접적으로 positive face를 욕구하고 있다고 특징짓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왜 negative face 보다도 positive face를 유도하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Mclaughlin et al(1983)은 자기(自己)를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행위를 청자의 face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분석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당화가 politeness strategy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Brown and Levinson에게 있어서는 정당화는 실제 negative politeness strategy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고려해 봄으로써 정당화는 동일한 행위가 적더라도 이중기능을 가지고 있고, 청자의 face를 위협함과 동시에 완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Baxter(1984)는 「요구(request)」의 연구와 관련해서 그녀의 피험자들에 의한 부정적, 긍정적인 strategy의 인정이 그 두 가지 사이의 구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Brown and Levinson의 strategy의 유형론의 「표시의 유효(representation validity)」에 의문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weight'(무게)의 요인 - 즉, 거리, 지위, 힘 - 에 관한 연구에서 Baxter(1984), Mclaughlin et al(1983), Holmes(1990)는 사회적 거리의 변항(變項)은 politeness의 결정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더욱이, Baxter(1984)는 Brown and Levinson의 예측에 반해, 대화자 사이의 보다 친근한 관계는, 보다 적은 정중함보다, 보다 많은 정중함을

결과로서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강압에 대한 지위(ranking)의 정도는 Baxter(1984)의 연구와 Meier(1992)에 의해 행해진 'repair work'(수복행위)의 연구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더욱이, Malaughlin et al(1983)은 힘(force)을 중요한 strategy의 예견자로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부터 Werkhofer(1992)는 그것들의 양화(量化)의 가능성조차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 두어야만 할 사실은, 그것들의 카테고리를 양화하는 것에 대한 Brown and Levinson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 연구 가운데에서 행해져 온 사실이다(Olshtain and Blum-Kulka 1985 ; Blum-Kulka 1990 ; Rhodes 1989).

이와 같은 Brown and Levinson의 중심이 되는 개념의 다양한 해석과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모순의 발견은 모든 연구 간의 비교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킴과 동시에 제각각의 연구 결과에까지도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상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모순을 명확히 하기 위해 Brown and Levinson의 negative face 혹은 positive face라는 이분법으로 돌아가 고찰해 보기로 하자.

Negative face는 타인으로부터 강요받고 싶지 않다는 요망을 포함하고 있고, Positive face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wants'(욕구)가 충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Brown and Levinson은 상대방에게 강압을 가하지 않는 언어행위를 negative politeness strategy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강압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wants'(욕구)에서 생각해 보면,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wants'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되므로 positive politeness strategy이다. 또한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이므로 negative face가 위협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를 받으면 자신의 face가 손상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wants'가 충족되지 않는다. 즉 positive face가 위협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negative face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positive politeness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positive face와 negative face 사이의 불투명한 측면이 Brown and Levinson에 의해 특정화 된 FTA와 politeness strategy마저도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FTA와 politeness strategy로서 한정된 행위는 항상 명확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죄행위는 Brown and Levinson의 분류에서 보면 negative politeness strategy이다. 그러나 담화중 자주 사용되는 「please forgive me」「please excuse me」(저를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은 사죄행위는 책임의 요구로서 볼 수가 있다. 즉, 이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강압이고, 청자의 face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요구(request)」는 FTA로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어, 'solidarity'(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Widdowson 1984). 즉, positive politeness의 상태로서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약속(promising)」과 「경의(complimenting)」는 Brown and Levinson의 모순된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두 가지 행위는 FTA로 간주됨과 동시에 positive politeness strategy로서도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Brown and Levinson 자신도 negative politeness strategy로 사용되는 「겸양(deference)」에는 negative와 positive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eier 1995).

이와 같은 두 가지의 strategy 타입 사이의 불선명한 차이에 대해, Ide(1990:76)은 일본어의 접미사 「わ」의 연구에 있어서, 「negative 혹은 positive politeness strategy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Brown and Levinson(1987:21)은 politeness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철저한 분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양적인 탐구를 위한 자각 가능한 구분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이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Brown and Levinson의 경험적인 연구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구조를 이용해서 politeness 현상을 파악해야만 하는가? 이하의 절에서는 선행연구로서 분석된 몇 가지의 관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3.1 사회적인 규범(the social-norm)으로서의 Politeness

Politeness의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관점(the social-norm view)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회의 politeness의 역사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역사적인 축적위에 politeness가 존재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각각의 사회에서는 다른 politeness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positive)인 평가(즉, 정중한 것)는 사회의 규범과 조화된 행위를 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부정적(negative)인 평가(즉, 정중하지 않은 것. 혹은 무례한 것)는 사회의 규범과 조화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어사회에서는 에티켓과 'good manners'로 다루어지고 있다[4].

즉, 규범적인 관점은 역사적으로 발화스타일(speech style)과 관련해서 politeness를 생각하고

4) 1872년의『Ladies' Book of Etiquette and Manual of Politeness』(J.S. Locke, Boston)에서는 다양한 정중한 담화를 행하기 위한 법칙이 써져 있다

있는 것이다. 소위 보다 형식적인 행위가 보다 정중함을 증가시켜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외로 형식적인 행위를 행하면 정중하지 않은(impoliteness), 실례(disrespect), 오만(arrogance)해져 버리는 것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는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다만, 사회적인 변항(social variables)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는 있다. 사회적인 변항은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 strategy(예를 들면 사죄, 요구등), 사회적인 거리(social distance), 힘(power)의 중요성이 언어사회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연구이다(Ide 1989; Matumoto 1988, 1989; Gu 1990).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다른 언어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는 「정중하다」「정중하지 않다」, 「긍정적이다」「부정적이다」, 「직접적이다」「간접적이다」와 같이 이분법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범위로서 특징 지우려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언어행위 혹은 간접적인 언어행위라는 분류는 Brown and Levinson의 구조 속에서 positive 혹은 negative라는 이분법과 유사하다. 간접적인 것은 negative politeness와 관계하며, positive politeness보다도 자신의 face를 위험하게 해 보존하는 것(더욱 정중하다)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불명료한 이분법을 논하기 시작하면 또한 그 분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명쾌함을 결여하게 된다.

Adegbia(1985:58)는 「나이지리아에서 politeness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극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해, politeness의 중요도가 낮은 언어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Tanaka and Kawade(1982:18)는 정중한 사회와 정중하지 않은 사회를 구별해서 「정중한 사회에서는 명확한 행위(遂行文)는 통상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온화함의 방책이 없는 명령문은 「난폭하다(abrupt)」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폴란드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아 정중하지 않고 난폭한 사회라고 불행하게도 특징짓는 것이 된다. 그러나 Wierzbicka(1985:154)에 의하면 폴란드에서는 명확한 수행문(遂行文)은 제안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온화함의 방책이 없는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 직접적인 행동이라 느끼고 있고, 보다 부드러운 선택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어떤 언어사회든 관계없이 두 가지의 성가운데 보다 정중하다(Baxter 1984 : Ide 1990)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Blum-Kulka(1990)에 의하면 politeness는 부모와 자식 상호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부모의 경우는 부모끼리는 보다 정중한 언어행위를 하지만, 그 자식에게는 정중하지 않은 언어행위를 한다. 그러나 미국 부모의 경우, 부모끼리의 정중함과 마찬가지로 자식에게도 정중한 언어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문화를 식별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판단기준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이 비교되는 각각의 문화와, 문맥 속에 있는 특정종류의 커뮤니케이션행위 – 예를 들면, 상호적 혹은 전달적, 보다 관습적 혹은 보다 적은 관습적 - 에 언어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이와 같은 라벨(label)을 이용해서 politeness 현상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상용구(stereotype), 혹은 언어중심주의를 영구화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에 있어서 직접성(directness)과 politeness를 측정할 기준을 명확히 하기 보다, 회화참가자가 어떤 식으로 face의 상호작용을 운영해 가는가에 따라 그 언어행위가 정중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2 회화의 원칙(the conversation-maxim)으로서의 politeness

politeness를 회화의 원칙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관점은 Grice(1967)의 「협조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이 관점은 회화참가자가 發話行爲를 행할 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Grice(1975)는 회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협조의 원리」라 불렀다. 「협조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해야만 할 사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단어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있다(Grice 1975:45).

(1) 양(quantity)의 원칙 : 1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의 정보를 제공하라
2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2) 질(quality)의 원칙 : 1 거짓이라 여겨지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2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3) 관계(relation)의 원칙 : 회화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4) 양식(manner)의 원리 :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피하라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라
간결하게 말하라
순서를 지켜 말하라

이상과 같은 원칙이 깨지면 회화의 언외의 의미(illocutionary meaning)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일본인이 많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종종 「차린 것은 없습니다만, 사양마시고 많이 드십시

오.」라는 말을 한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즉, 회화의 원칙은 문 구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에 있어서 언어사용에 관한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Lakoff(1973)는 Grice의 이론을 회화원리로 채용해 politeness를 설명하려고 한 최초의 연구자중 한사람이다. 그녀는 Grice와는 달리 문법적인 규칙의 개념과 문법적으로 적절한 개념을 어용론적인 범위까지 확장시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어떤 언어행동이 어용론 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만약 부적절한 경우 어느 정도 부적절한지를 기술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1973:296). 또한 이와 같은 politeness의 범위의 확장에 관해 그녀는 특정한 문 구조에 따라 정중한지, 정중하지 않은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politeness는「인간 상호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Lakoff, 1979:64).

또한, Lakoff(1973)는 어용론적인 언어능력을 두 가지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

(1) 명료하게 하라. (Be Clear)
(2) 정중하게 하라. (Be polite)

이 두 가지 원리는 항상 대립하는 것이다. 즉, 명료함을 잃어버리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회화참가자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쪽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이다. 더욱이 그녀는 3가지의 법칙을 만들어,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따라야만 할 것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법칙 1	강요하지 말라.	(Don't Impose)
법칙 2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라.	(Give Options)
법칙 3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Make a Feel Good)

이 3가지 법칙은 화자의 상황판단에 의해 politeness의 타입을 선정,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발화할 때, 어떤 레벨의 법칙을 사용하면 좋을까를 결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Lakoff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회화의 원칙을 이용해 politeness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Leech(1983)이다. Leech는 Grice의 원칙은 회화를 억제, 혹은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politeness는 어용론적인 수사의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언어행위로부터 회화의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eech이론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화자에 의한 언어외행위에 의한 목표와 화자의 사회적인 목표를 구별해서 분석한 점이다. 이 2가지 생각은 인간 상호간의 수사와 문맥적인 수사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특정의 언어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상호간의 수사의 범위 내에서 politeness를 다루고, 그것은 Grice의 「협조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정중함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 「아이러니 원리(irony principle)」라는 3가지의 원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원리는 그의 어용론적 이론 속에서는 병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협조의 원리」는 화자의 발화행위가 어떠한 간접적인 메시지인가를 보여주고, 「정중함의 원리」는 왜 이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는 화자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Leech의 「정중함의 원리」는 소위 청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신념의 표현을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호의적인 신념의 표현을 최대화 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 상호간의 수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의 「협조의 원리」와 「정중함의 원리」는 제각각 분리되어, 발화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Lakoff와 마찬가지로 Leech도 「협조의 원리」와 「정중함의 원리」는 종종 어떤 특정 발화의 문맥에 관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자의 심중에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Leech는 Grice처럼 그의 이론의 구조 안에서, 보다 명확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인간 상호간의 원칙을 생각하고 있다(1983:97).

(1) 배려(Tact)의 원칙 : a 타인(聽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라.
b 타인(聽者)에 대한 이익을 최대화하라.
(2) 관대성(Generosity)의 원칙 : a 자신(話者)에 대한 이익을 최소화하라.
b 자신(話者)에 대한 부담을 최대화하라.
(3) 시인(Approbation)의 원칙 : a 타인(聽者)의 비난을 최소화하라.
b 타인(聽者)의 칭찬을 최대화하라.
(4) 겸손(Modesty)의 원리 : a 자신(話者)의 칭찬을 최소화하라.
b 자신(話者)의 비난을 최대화하라.
(5) 합의(Agreement)의 원칙 : a 자신(話者)과 타인(聽者)과의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하라.
b 자신(話者)과 타인(聽者)과의 합의를 최대화하라.
(6) 공감(Sympathy)의 원칙 : a 자신(話者)과 타인(聽者)과의 반감을 최소화하라.
b 자신(話者)과 타인(聽者)과의 공감을 최대화하라.

Leech에 의하면 이들 원칙은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의 원칙」쪽이 「관대성

의 원칙」보다도,「시인(是認)의 원칙」쪽이「겸손의 원리」보다도 강한 힘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정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보다도 타인 측에 강하게 집중한다는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칙 원리인 a와 b에서는 b쪽의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되며, 이것도 소극적인 정중함(불일치를 피하는 것)쪽이 적극적인 정중함(일치를 구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일반원칙에서 온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1983:156).

또한 Leech의 경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배려」라는 정중함을 측정하는 어용론적인 척도로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가「이익・부담」의 척도이며, 이것은 어떤 언어행위가 청자 또는 화자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담 또는 이익을 초래하는가하는 것과 관련한다. 즉, 청자에게 부담이 크다면 정중함은 감소하고, 이익이 크다면 정중함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선택성」의 척도이며, 화자가 청자의 반대에 대해 선택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긴 표현을 하는가이다. 즉, 명령문처럼 선택의 여지가 적으면 정중함은 감소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한다면 정중함은 증가한다. 세 번째는「간접성」의 척도이며, 표현의 완곡성의 문제이다. 즉, 표현이 간접적으로 됨에 따라 그 발화 효력은 약해지지만, 정중함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협조의 원리는 항상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Leech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행해지는「상대적인 정중함」과, 특정 화자의 행위에 관련된「절대적인 정중함」의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즉, 발화외의 행위 중에 명령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중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중하다. 그의 생각 가운데 소극적인 정중함이라는 것은 정중하지 않은 발화외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행위는 정중한 발화외행위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행해지는「상대적인 정중함」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특정 화자의 행위에 관련된「절대적인 정중함」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정중함은 특수한 문의 구조와 표현에 따라서는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Leech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정도의 정중함이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의를 확립・유지한다는 사회적인 목표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발화외행위적 기능을 4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1983:104).

(1) 경합형 : 발화외행위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경합한다.
예를 들면 명령하는 것,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2) 우호형 : 발화외행위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제공하는 것, 초대하는 것, 감사하는 것.

(3) 협조형 : 발화외행위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보고하는 것, 단언하는 것, 교수하는 것.
(4) 대립형 : 발화외행위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대립한다.
예를 들면 협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매도하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실제 담화분석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가? 어떠한 척도(scale)가 적용되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가? 경험적인 근거는 있는가?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명령한다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충돌을 초래하고, 연대감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화자의 소극적인 정중함을 요구한다는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우수한 답안을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칠판에 쓰도록 하는 장면을 생각해본다면, 명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충돌을 초래하거나, 연대감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화자의 소극적인 정중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Friser 1991). 이 문제는 Leech가 발화내행위의 제각각의 타입이 결과적으로 정중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의 어느 쪽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효과적인 회화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담화의 분석에 있어서는 청자와 화자 사이에 행해지는 FTA와 그 중화, 회화참가자간의 face의 교환이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회화의 목표와 메시지 전달의 방법을 포함한 담화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4. Politeness 이론의 재검토

지금까지의 politeness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oliteness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배려행위,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직접적 발화의 동화, 타당성 있는 배려, 그리고 독특한 형식의 이용 등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Craig et al(1986)은 그들이 politeness와 타당성의 혼란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message strategies'와 'social judgement'라는 두 가지 타입의 politeness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Janney and Arndt(1992)는 사회적인 politeness와 회화참가자 상호간의 politeness로 나누어 politeness를 재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Lakoff(1989)는 'polite' 'non-polite' 'rude'의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Watts(1992:50)는 사회적인 타당성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지지하고 'politic behavior'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약 'politeness'를 사용한다면 그 적절한 정의는 타당성(appropriateness)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Zimin(1981), Meier(1995)와 일치하고 있다. 즉, politeness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Fraser and Nolen 1981 ; Gu 1990).

Politeness 현상은 언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 외에 있는가? 혹은 그 기준 자체의 상호작용인가? 에 기초를 둔 것이다(Ehlich 199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politeness는 특정의 문맥과 특정 청자의 기대와 거기에 부수하는 해석과의 관련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즉, 文의 의미의 일부라기보다는 발화의 의미의 일부이다(Zimin, 1981). 예를 들면 몇 가지의 정중하게 말을 거는 방법은 다른 말투보다도 정중하다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특정의 언어사회 속에서는 약간의 겸양을 전달하는 특정의 상황이 그중의 어떤 상황에 관한 적절함(즉, polite)일지도 모르며, 혹은 부적절(즉, impolite)할지도 모른다. 즉, 특정의 문맥상에서 행해지는 지나친 겸양은 「지나치게 정중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즉, 「지나치다」라는 것은 부적절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Holmes는 「사죄하는 것은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1990:156)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앞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지지할 수 없다. 「사죄」와 「정중하다」라는 언어행위는 상황과 그 표현의 사용방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경솔한 행위로서 혹은 부적절(정중하지 않은)한 행위로서 여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살펴보면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의 개념을 또 다른 의미로 확장하게 된다. 즉, Brown and Levinson의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행위는 단순히 다른 행위에 부대(附帶)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사죄행위는 그 행위자체로서 최초의 언어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politeness는 politeness를 특정의 언어행위, 운율적, 의미론적, 통어론적. 어용론적인 마커에 고유한 것으로 또한 그 자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즉, 특정 언어사용과 어떤 표현이 근본적으로 정중하다, 혹은 정중하지 않다든가, 혹은 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언어사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화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겸손하게도 하는 회화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들 수단이 복수의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에 따라서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훨씬 더 정중하다, 혹은 보다 덜 정중하다는 일반적인 사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언어사회에서는 동일한 문맥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언어형식을 사용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즉, politeness는 언어와 문화 사이에 있어서 동등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politeness를 다른 언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맥을, 그대로 자신의 언어표현과 연결시켜 비교해, 그것이 「정중하다, 정중하지 않다」와 같은 식의 분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Meier 1995).

Politeness는 모든 사회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사회에서는 그룹 속에서의 개인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경우도 있고, 개인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다 (Matumoto 1988 ; Ide 1989).

그러나, politeness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비교 연구는 동일한 문맥의 언어행위를 비교하는 또는 타당성 있는 언어행위에 관한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언어사용을 다른 언어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며, 민족 중심적으로 politeness현상을 분석해버릴 위험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추가한 훨씬 광범위한 시스템 속에서 행해진 언어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인 이상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face라는 개념에서 politeness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5. 나가기

이상,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다양한 politeness에 대한 개념을 재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명확히 했다. Brown and Levinson(1983)의 politeness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그 개념과 politeness에 대한 이분법이 실제로 담화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애매모호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politeness 현상을 파악한다면 특정 종류의 발화행위에 의존하게 되어, 언어중심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politeness 현상에 대한 회화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은 효과적으로 담화를 성립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담화에 있어서 회화참가자간의 face의 교환이라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담화의 목표와 메시지의 전달 등 담화의 모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금후의 politeness현상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face행위이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이 시점은 지금까지의 레벨 분석에서 담화 레벨로 분석의 폭을 넓혀, face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을 도입해, 담화가 회화참가자의 face 교환에 의해 성립하

고, 그 face행위에 기인해 메시지의 전달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일본어의 경우 문말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 표현이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본인 고유의 언어 행위를 검토 분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된다.

【參考文獻】

北尾謙治、北尾,S・キャスリーン(1988)「ポライトネス一人間關係を維持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手段」『日本語學』7(3)

西野容子(1993)「會話分析について―ディスコースマーカーを中心として―」『日本語學』12(5)

堀口 純子(1988)「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聞き手の言語行動」『日本語教育』64

ポリー・ザトラウスキー(1993)『日本語の談話の構造分析―勸誘のストラテジーの考察―』TOKYO:くろしお出版

メイナード、泉子・K(1993)『會話分析』くろしお出版

Adegbija, Efurosibina(1989)「A comparative study of politeness phenomena in Nigerian English, Yoruba and Ogori」『Multilingua』8(1), p.80

Bach, Kent and Robert Harnish(1979)「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Cambridge. MA: MIT Press.

Baxter, Leslie A.(1984)「An investigation of compliance-gaining as politeness」『Human Communication Research』10(3), pp.427-456

Bell, David(1984)「Cancelative discourse markers. Ph. 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Published 1994, U.M.I. Michigan]

Blum-Kulka, Shoshana(1982)「Learning to say what you mean in a second language: A study of the speech act performance of learners of Hebrew as a second language」『Applied Linguistics』3(1), pp.29-60

_____(1990)「You don't touch lettuce with fingers: Parental politeness in family discourse」『Journal of Pragmatics』14, pp.259-288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1978)「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6-269

_____(1987)「Politeness :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ck, R. A.(1996)「Reading Forster's style: Face actions and social scripts in Maurice」『Style』 30(1), pp.69-94

_____(1997)「Toward an extended theory of face action : Analyzing dialogue in E.M. Forster's A Passage to India」『Journal of Pragmatics』27, pp.83-106

Craig, Robert T., Karen Tracy and Frances Spisak(1986)「The discourse of requests: Assessment of a politeness approach」『Human Communication Research』12(4), pp.437-468

Ehlich, Konrad(1992)「On the historicity of politeness. In: R. J. Watts, S. Ide and K. Ehilch」『eds Politeness in language』Berlin: Mouton, pp.71-107

Fraser, Bruce and William Nolen(1981)「The association of deference with linguistic 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7」, pp.93-109

Grice, Paul(1967)『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MS. of the William James Lectures』Harvard University

_____(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pp.41-58

Gu, Yueguo(1990)「Politeness phenomena in modern Chinese」『Journal of Pragmatics』14, pp.237-257

Holmes, Janet(1990)「Apologies in New Zealand English」『Language in Society』19(2), pp.155-199

Ide, Sachiko(1982)「Japanese sociolinguistics, politeness and women's language」Lingua57, pp.357-385
_____(1989)「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linguistic politeness」『Multilingua』8(2/3), pp.223-248
Ide, Sachiko(1990)How and why do women speak more politely in Japanese? In: S. Ide and N. MaGloin Hanaoka, eds. Aspects of Japanese women's language. pp.63-79. Tokyo: Kuroshio Publishers.
Lakoff, Robin(1973)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In: C. Corum et al. eds. Papers from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pp.292-305
_____(1979)Stylistic strategies within a grammar of style. In: J. Orasanu et al. eds. Language, sex and gender. Th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pp.53-80
_____(1989)「The limits of politeness: Therapeutic and courtroom discourse」『Multilingua』8(2/3), pp.101-129
Leech, Geoffrey N.(1983)『Principles of pragmatics』London/New York: Longman.
Matsumoto, Yoshiko(1988)「Reexamination of the universality of face: Politeness phenomena in Japanese」『Journal of Pragmatics』12, pp.403-426
McLaughlin, Margaret I., Michael J. Cody and Dan H. O'Hair(1983)「The management of failure events: Some contextual determinants of accounting behavior」『Human Communication Research』9(3), pp.208-224
Meier, A. J.(1992) A sociopragmatic contrastive study of Repair Work in Austrian German and American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Meier, A. J.(1994) Apologies: What do we know? What do we teach? Paper delivered at the TESOL Conference, Baltimore
Meier, A. J.(1995) Passages of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4, pp.381-392
Olshtain, Elite and Shoshana Blum-Kulka(1985) Degree of approximation: Nonnative reactions to native speech act behavior. In: S. M. Gass and C.G.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303-325. Rowley, MA: Newbury.
Snow, Catherine E., Rivka Y. Perlmann, Jean Berko Gleason and Nahid Hooshyar(1990)「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politeness」『Journal of Pragmatics』14, pp.289-305
Tanaka, Shigenori and Saiki Kawade(1982)「Politeness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5, pp.18-33
Watts, Richard(1992) Linguistic politeness and politic verbal behavior: Reconsidering claims for universality. In: R. J. Watts, S. Ide and K. Ehlich, eds. Politeness in language. pp.43-69. Berlin: Mouton.
Wierzbicka, Anna(1985)「Different culture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speech acts」『Journal of Pragmatics』9, pp.145-178
_____(1991)「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Berlin: Mouton』
Zimin, Susan(1981)「Sex and politeness: Factors in first- and second-language use」『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7, pp.35-58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Politeness의 多樣한 再檢討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다양한 politeness대한 개념을 재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먼저 Brown and Levinson(1987)의 politeness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그 개념과 politeness에 대한 이분법이 실제 담화에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론적인 애매함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관점에서 politeness현상을 파악하여보면 특정종류의 발화행위에 의존해 버려 언어중심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 politeness현상에 대한 회화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은 효과적으로 담화를 성립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나 담화에 있어서 회화참가자간의 face의 주고받음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담화의 목표와 메시지의 전달과 같은 담화의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The Multidimensional Reappraisal of the Notion of Politeness

This research reappraises the hitherto examined diverse notions of politeness, and then suggests the problems embedded in them. First of all, it introduces the theory of politeness developed by Brown and Levinson (1987), and criticizes the theoretical ambiguity of, and ensuing problem with, the way in which their notion of politeness and its innate dichotomy are applicable to our actual (everyday) conversations. And this research also points out that the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polit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norm might be able to fall into linguistic centrism by relying much on certain types of verbal performance. Furthermore, while the phenomenon of politenes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sational rules might be helpful in enabling our (daily) conversations more effectively, it lacks reciprocal face-to-face interactions between or among those who participate in those conversations; this perspective of seeing the phenomenon of politeness seems problematic in terms of fathoming the overall shape/appearance of a conversation, such as its main purpose and its delivery of message.